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8월 3일(월) 제 3374호

道 민선9기 첫 외투 '결실' 아데카 613억 투자

'35년 동행' 글로벌기업 재투자 지난 7월 3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아데카코리아㈜ 투자협약 체결식에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박종석 아데카코리아 대표이사가 투자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민선 9기 첫 외국인투자 협약
아데카코리아 투자협약 체결
35년 전북 투자 신뢰 재확인
완주산단 첨단소재 생산 증설

전북도가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아데카코리아㈜와 61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화학소재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박종석 아데카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협약이다. 전북에 뿌리 내린 글로벌 기업이 다시 한번 증설을 결정하면서,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첨단 소재 생태계를 끌어올릴 발판이 마련됐다.

아데카코리아는 일본 아데카가 지분 전액을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91년 완주에 설립된 이후 35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다. 현재 완주에 본사와 3개 생산공장을 두고 수지첨가제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앞서 2019년과 2021년에도 투자협약을 맺으며 전북에 대한 신뢰를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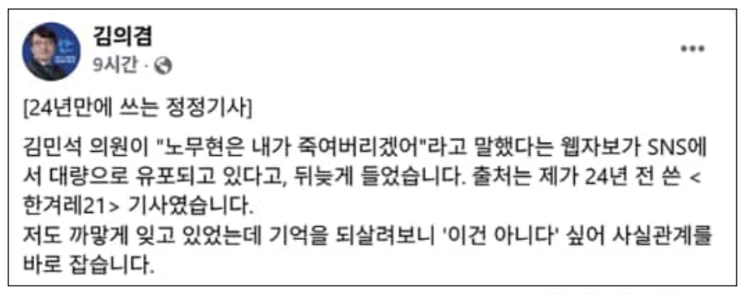
모기업인 아데카는 수지첨가제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도체 메모리용 소재와 하프늄 전구체 등 첨단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이번 투자로 아데카코리아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3공장 부지에 613억 원을 들여 수지첨가제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새로 생산할 수지첨가제는 플라스틱 제품의 기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회사가 자체 개발한 기능성 첨가제'Transparex'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회사는 연내 착공해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와 완주군은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증설로 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첨단 화학소재 클러스터도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에 대해 "아데카코리아는 전북에 뿌리를 내린 뒤 꾸준한 재투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김의겸, 24년 전 본인 기사 정정 "김민석 발언 기사 오보였다"


김의겸
9시간 ·
[24년만에 쓰는 정정기사]
김민석 의원이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했다는 웹자보가 SNS에서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뒤늦게 들었습니다. 출처는 제가 24년 전 쓴 <한겨레21> 기사였습니다.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기억을 되살려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사진=김의겸 의원 SNS>

웹자보 SNS 유포에 직접 반박
"당시 후속 인터뷰로 바로잡아"
"전당대회 공정한 경쟁" 당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기억을 되살려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면서 '과거 24년전 한겨레 신문기사가 오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의원이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했다는 웹자보가 SNS에서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뒤늦게 들었고, 출처는 제가 24년 전 쓴 〈한겨레21〉 기사였다"며 이같이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당시 이같은 기사를 썼던 배경과 미확된 김민석 의원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 수정 기사를 썼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확된 기사가 다시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밝히면서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취재를 해서 〈승부사 노무현 마침내 해냈다〉 기사를 내보냈다"면서도 "당시 김민석 의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한 채 기사를 넘겼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김민석 의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애초 저에게 말해준 취재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는 말꼬리를 흐리며 애초 입장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김민석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에게 해명할 기회도 줄 겸 바로 이어서 〈"이제 영등포로 가겠다" 중앙정치에서 내려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 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며 당시 관련 후속 기사를 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당시 김민석 전 의원에게 김 의원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오며 '노무현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묻자 김 전 의원은 "무협지 수준 얘기다. 그런 말이 회자된다는 사실을 어제 처음 들었다. 황당한 코미디다"라고 답했다.

또 "(후속기사를 통해 바로잡는)그렇게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4년 만에, 기사를 쓴 저조차 잊어버렸던 기사가 무덤에서 기어나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배회하고 있다"며 "김민석 의원의 해명은 생략한 채 불리한 내용만 뽑아내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뒤늦게 국회에 들어와 지켜보는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무력감만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에 맞서 하나로 뭉쳐 싸웠던 민주당이 맞나 싶다. 부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치르고 더 단단한 민주당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아쉬워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 "초·중 입학생 방학 중 필수예방접종 확인"

감염병 발생 예방 접종 완료 권고
접종 무료 지원…이력 온라인 확인

전북도는 방학을 맞아 2026학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가운데 아직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접종을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안내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따른 것으로,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생(2019년생)과 중학교 입학생(2013년생)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총 4종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학교 입학생은 ▲Tdap/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여학생 대상) 1차 등 총 3종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한 뒤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자녀의 예방접종 이력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 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산 등록이 가능하며 백신 접종 금기 대상자는 의료기관 진단을 거쳐 금기 사유를 등록해야 한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3일 월요일

민선9기 인수위, 전북도정 '청사진' 백서 공개

21일 활동 기록 139개 과제 담아
이원택 도지사에 전달
도민주권정부 방향 제시
전자책 형태 공개 누구나 열람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도민주권정부의 출발 과정과 정책 논의를 정리한 '인수위원회 백서'를 이원택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원택 지사와 신형식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분과·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1명이 함께 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6월 10일 인수위원회 출범부터 6월 30일 최종 보고회까지 21일, 504시간에 걸쳐 진행된 실·국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점검, 현장 방문, 분과별 정책 논의, 전문가 특강, 도민 의견 수렴 등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논의 과정을 기록했다.

백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당선인 및 인수위원회 주요 활동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정책 구상 ▲민선 9기 출범과 인수위원회 개요 ▲분과·특위별 도정 운영 방향 및 주요 활동 ▲도민 소통과 정책 반영 등이다.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분야별 현안을 살피고 정책을 검토해 모두 139개 도정 과제를 마련했으며, 이를 지난 6월 30일 최종 보고회에서 도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백서에는 139개 도정과제와 함께 민선 9기 도정운영 방향, 분과별 정책 논의와 활동, 도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내용, 도지사 취임 행사 등이 실렸다.

신형식 인수위원장은 "이 백서는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21일의 여정과 새로운 전북을 향한 진심을 담은 기록"이라며 "백서에 담긴 방향이 도정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백서는 7월 30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공개돼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도청 각 부서와 시·군, 공공기관 등에 배포돼 민선 9기 도정의 정책 방향과 인수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공유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 전국 최초 보육활동 보호센터 출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상담·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

전북도가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육활동 보호센터'를 공식 출범시키고 보육활동 보호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도는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활동 보호센터' 현판식을 열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육현장에서는 보호자의 폭언·폭행이나 과도한 민원 등 보육활동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게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돌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보육활동 보호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활동 침해 상담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 ▲법률 상담 연계 ▲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보호자 인식개선 교육·홍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심리회복 프로그램인 '담풀'과 연계한 심리 지원을 비롯해 자체 권리교육과 안심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보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활동 침해로 교직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교사 지원도 연계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뒷받침한다.

이번 현판식은 서울과 경기도가 기존 고충처리기구를 활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보육활동 보호센터의 공식 출범을 대외적으로 알린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전북도>

도는 이를 계기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독립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상호 존중하는 보육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보육활동 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회복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돌봄문화를 만들어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도내 8개 해수욕장 집중점검
폭염·해파리 등 위험 선제 대응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8월 18일까지 도내 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해수욕장은 지난 7월 3일 부안 변산·격포 등 5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 10일 군산 선유도와 고창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해 운영 중이다. 여름철 폭염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부터 자체 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해 해수욕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연휴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장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인명구조함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를 비롯해 구명보트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안전관리요원 근무 실태, 관계기관 협조체계 운영 등이다. 또한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 안내하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그늘막과 파라솔 등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발생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이용객 보호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북 서해안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변산·격포 등 해수욕장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해파리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대량 발생 시에는 신속한 제거 작업을 통해 해수욕장 유입을 차단하고 이용객 쏘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형삼 전북도 해양항만과장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현장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대회 연다

보완수사권 폐지 취지 전달
한병도 "국민 우려 살필 것"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관련 형사소송법안 국회 처리와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민주당이 이같이 대국민보고대회를 갖기로 한 것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이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 8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국민께 상세하게 보고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우려와 관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기구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와 기소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롭게 바로선다"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윤준병 '보호동물 임시돌봄제 도입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에 대한 임시보호제를 도입해 안락사와 파양을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보호동물 임시돌봄제 도입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구조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민간단체, 개인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는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고 있다.

또한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 역시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과 행동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이후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범위에 기존 기증·분양 외에 '임시 보호 관리'를 추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 가정 등에 임시로 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돌봄 기간 중 접종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물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안락사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시 겨울철 복지 지원 장관 표창 수상

민·관 협력 지원 공로 인정
복지 자원 발굴 분야 큰 성과

전주시가 '2025~2026년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의 표창 수상은 겨울철 지역민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로를 보건복지부에게 인정받아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것이다.

평가(2025년 11월~2026년 3월)에서 시는 △동절기 복지안전망 구축 △위기가구 선제 발굴 △민·관 협력 지원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등유·연탄 사용 난방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난방 위기 175 가구에게 연탄과 등유를 지원하는 '온(溫)기 가득 에너지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방우정청 협업을 통해 집배원이 독거노인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따뜻한 안부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에도 앞장섰다.

또 시는 민·관 협력 통한 복지 자원 발굴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다.

더불어 시는 전주시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한 총 15억6000만원 기부금품을 모집하며 나눔 문화에도 앞장섰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유지해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티 투어 이벤트 8월 내내 이어져

여름철 반값 이벤트 진행
5000원에 전주시 명소 구경

전주시티 투어 할인 이벤트가 8월 한 달여간 진행된다.

시의 매주 수요일·토요일 '여름특가코스'는 △덕진공원·연화정도서관 △전주한옥마을 △전주수목원 △상관편백나무숲 등 전주 인근의 힐링 명소를 하루 만에 알차게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 운영된다.

'전주 시티투어' 이용요금은 기존 대비 50% 할인된 5000원에 제공된다.

시는 여름코스에 '연화정도서관' 한옥도서관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여유로운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투어 예약 및 문의는 남북여행 누리집(www.nbtour.co.kr) 또는 시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 운영

방학기간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비 지원
맞벌이·한부모 양육 부담 해소

전주시가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 틈새돌봄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며 초등학생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방학 기간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프로그램은 △독서 △놀이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되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오전 간식과 점심을 지원해 방학 중 아동 건전한 성장과 규칙적인 생활을 돕는다.

특히 시는 이번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 기간에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해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정혜민 기자

전북소방 상반기 하루 평균 118.3건 출동·13.9명 구조

교통사고·벌집제거 출동 급증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조 또는 생활안전 출동은 총 17,858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출동은 △구조 출동 12,081건 △생활안전 출동 5777건 △교통사고 4083건 △화재현장 3177건 △동물처리 2292건 △위치확인 2131건 등이다.

생활안전 분야 중 △벌집제거 출동은 1193건으로 동물처리와 비화재보 확인 출동도 꾸준히 증가했다.

소방대원 하루 평균 118.3건 현장 출동했으며 대원들은 상반기 동안 2105명을 구조했다.

지역별 소방서 출동에는 군산소방서 2550건, 완산·익산·덕진소방서가 뒤를 이었으며 이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구조·생활안전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조훈련과 여름철 풍수해·수난사고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훈련 강화와 최적화된 구조대응시스템을 가동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생명존중문화 확산

11개 동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

전주시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상반기 11개 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 내 보건·복지·교육·지역사회·공공서비스 기관 등이 협력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24년 평화1동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동(금암동, 송천1동, 서신동, 삼천3동, 우아2동, 진북동, 평화2동, 호성동, 효자4동, 효자5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주요 참여기관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으로 각 동의 병·의원과 약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주민센터, 경찰청, 119안전센터 등 105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참여기관들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생명사랑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서비스 지원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촘촘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과 관련한 상담은 센터 누리집(www.jjmind.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통해 24시간 언제나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의회-한국전력 전북본부 '지역민 상생' 간담회 개최

전력인프라 안정화·민원대응
사회공헌사업 다각적 협력

전주시의회와 한국전력 전북본부 지역상생 간담회가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과 윤여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장은 △전력 인프라 안정과 △지역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소통했다.

특히 전력 공급 안정성 강화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 전력 민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주제가 되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측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민 상생과 사회공헌사업 등 다각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전주시의회와 한국전력 전북본부 지역상생 간담회가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전주시의회>

윤여일 본부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전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전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주만 의장은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애써주시는 한국전력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의회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

3년 연속 자율 타결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

전북대학교병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진행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분규 없이 잠정 합의하며 3년 연속 자율 타결을 이뤄냈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장시간 이어진 집중 교섭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 대비 3.5% 인상과 함께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교섭 과정에서도 파업 없이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는 이번 잠정 합의를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시니어클럽 보건복지부 장관상 '2관왕' 쾌거

26년 신직무 우수모델 최우수상

전주시니어클럽이 '2026년 노인적합형 신직무 우수모델'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이 '2027년 신규 아이템 공모' 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주시 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2026년 신직무 우수모델 및 2027년 신규아이템에 선정되며 노인일자리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평가에서 세대 간 교류와 다문화사회 과제를 해결하고,노인 사회참여 확대와 외국인 주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함께 이루는 공익형 사회서비스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다.

시상식에서 전주시니어클럽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공유했다.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역시 독창적인 기획력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2027년 신규 아이템' 부문에서 '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 위한 시민안전 건물번호판 점검원' 사업으로 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동시 수상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 신규 맞춤형 일자리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초 발표된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도 전주시 관내 시니어클럽이 모두 우수 수행기관으로 대거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혜민 기자

전주예수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96.57점 기록

예수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11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1차 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구성여부 △병원도착 60분 이내 정맥내혈전용해술 실시율 △병원도착 120분 이내 동맥내혈전제거술 실시율 △조기재활 및 기능평가 실시율 △입원 30일 내 사망률 등을 평가했다.

예수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6.57점을 기록해 1등급을 획득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급성기 뇌졸중은 초동 대처와 전문적인 치료 체계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질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익명 천사 손길 전주조촌동 지역사회에 이어져

익명 천사 백미(10kg) 100포 전달

익명 천사 손길이 전주조촌동 지역사회로 이어졌다.

지난달 7월 6일과 30일 두 차례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더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을 나누고 싶다"는 신원미확인자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후 전주조촌동 주민센터 앞에는 6일, 30일 각각 백미(10kg) 50포씩 놓여있었다.

익명 천사가 다녀간 것이다.

익명 천사 손길은 풍요 손길보다는 '같이'란 가치가 실려진 것으로 풀이되며 지역민에게 따듯히 전달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전북 광공업 생산 회복세… 소비는 여전히 '한파'

6월 산업활동동향 생산·출하 증가 대형소매점 판매 감소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이 자동차와 1차 금속, 화학제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소비를 보여주는 대형소매점 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하며 생산과 소비 간 온도 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전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전달보다 4.9% 각각 증가했다. 출하도 전년 동월 대비 5.3%, 전월 대비 4.2% 늘었으며, 재고는 전년 동월보다 11.2% 감소해 생산 증가와 함께 재고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14.7% 증가하며 회복세를 주도했고, 1차 금속은 11.0%, 화학제품은 6.5% 각각 늘었다. 반면 전기장비는 16.0%, 전자·통신은 16.9%, 비금속광물은 6.4% 감소하는 등 업종 간 희비가 엇갈렸다.

광공업 출하 역시 자동차(10.0%)와 기타운송장비(110.6%), 식료품(3.9%) 등의 증가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면 기계장비와 전기장비, 나무제품은 감소세를 보였다.

재고는 자동차와 식료품, 의료정밀광학 분야에서 크게 줄어든 반면 화학제품과 전기장비, 음료는 증가했다.

생산지표 개선과 달리 소비는 부진했다.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3.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0% 감소했다.

가전제품 판매는 증가했지만 신발·가방과 오락·취미용품, 음식료품, 의복, 화장품 등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하며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졌다.

이번 통계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내수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와 일부 주력 제조업이 산업활동을 견인하고 있지만 소비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생산 회복세를 지역 내 소비와 고용 증가로 연결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업종별 균형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상협 "국내 1000대기업 중 전주 본사 10개사"

2025년 기준 총매출액 전년 대비 6.7%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와 한국콘텐츠미디어가 발간한 '2026 한국 1000대 기업' 분석 결과 2025년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10개사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북지역 1000대 기업 지난해 총매출액은 9조94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03억원(6.7%) 증가했다.

또 10개 기업 가운데 8개사 전국 매출 순위가 상승하는 등 기존 지역기업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스타항공(주) 신규 진입이다.

군산에 본사를 두고있는 이스타항공은 항공 수요 회복과 국내외 노선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보다 36.6% 증가한 6301억원을 기록했으며 전국 매출 순위도 2150위에서 813위로 1337계단 상승하며 새롭게 10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기업 실적도 개선됐다. 도내 매출 1위인 동우화인켐(주)은 매출 2조892억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하며 선두를 유지했고, (주)하림(12.9%), 제이비우리캐피탈(16.1%), (주)JB금융지주(19.5%), (주)전주페이퍼(4.5%) 등도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JB금융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를 포함한 3개사가 2년 연속 1000대 기업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경쟁력을 이어갔다.

반면 기업 규모와 저변 확대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전북은 국내 1000대 기업 10개사로 전국 12위를 유지했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0%, 매출액 기준 0.3%에 머물렀다.

올해 전국 매출 상위 200위권에 포함된 전북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간 기업 편중 현상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0대 기업의 73.2%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며 영남권은 15.0%를 차지한 반면, 전라권(전북·전남·광주)은 34개사(3.4%)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 성장 여건의 격차가 기업 분포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전북기업의 매출 증가와 전국 순위 상승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존 기업의 성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기업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와 산업생태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벼 키다리병 발생 시 품질 영향 커… '신동진1' 주목

저항성 강화… 고품질 쌀 생산 대안 우뚝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이상기후로 벼의 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벼 키다리병이 수량과 완전미율 등 쌀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벼 키다리병은 종자전염성 병이다. 감염된 벼는 비정상적으로 자라 단순한 수량 감소를 넘어 쌀의 미질과 상품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등 관련 연구에 따르면 키다리병 발병이 높아질수록 등숙률과 정현비율이 정상적인 벼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쌀 등급을 결정하는 완전미율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키다리병 피해가 없는 벼의 완전미율은 76.5% 수준이었으나, 감염률이 50%에 이르면 21.3%까지 급감한다. 또한 깨진 쌀과 분상질립 등의 발생이 늘어나 쌀의 외관 품질과 상품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크다.

키다리병 발병률이 높아질수록 수량 감소 폭이 커지며, 발병률이 50%에 이르면 정상적으로 생육한 벼보다 수량이 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쌀 품질 저하에 따른 판매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해 농가 소득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키다리병에 강한'신동진1'이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대안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신동진1'은 기존'신동진'의 우수한 밥맛을 유지하면서 키다리병 저항성을 강화한 품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이상기후로 벼의 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벼 키다리병이 쌀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농기원>

키다리병 발생에 따른 수량과 품질 저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경원 종자사업소장은"벼 키다리병은 수량 및 쌀의 상품성까지 떨어뜨려 농가 소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기존 신동진의 우수한 밥맛을 유지하면서 키다리병에 강한'신동진1'의 보급을 확대해 전북 쌀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남원시 염소 농가 어려움 해소 지원

연구·기술 지원 제도 개선 등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이 전북도 남원시 염소 경영 우수 농가를 찾아 사육·경영과 가공·판매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국내 염소 산업 안정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염소 생산과 가공·판매 시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연구·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조용민 원장은 염소 사육 우수 농가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사 인허가 절차(축사 적법화),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수입 염소 고기 원산지 관리 강화 등 현장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원장이 찾은 농가는 염소 약 3000마리 가량을 기르는 축사로 조원장은 축사와 시설 현황 등을 살폈다.

이곳 농가는 번식 축사와 비육 축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체별 사육 정보도 관리하고 있다.

또 직접 판매장과 온라인 유통망도 운영하고 있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운영(경영) 체계도 갖췄다.

남원흑염소농장 전영기 대표는 "염소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사 합법화 지원과 수입 염소 고기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염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농가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단가 현실화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이 전북도 남원시 염소 경영 우수 농가를 찾아 국내 염소 산업 안정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농진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원 조용민 원장은 "현장의 제안 중에서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관계 부처와 공유하면서 풀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염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청소년 과학교실' 운영

탄소배출 감축·자원 재활용 중요성 등 알려… 5일 강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청소년과 학부모 위한 과학교실 특별 강연회를 준비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인기 과학커뮤니케이터 이선호(활동명 '엑소쌤')씨를 초청해 청소년 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과학교실은 '지구와 나의 미래를 바꾸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강연회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탄소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자원 재활용 실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강연회는 오는 5일 오후 4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초등학생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관람 신청자들에게는 강연장 입장을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 참여 과제가 주어진다.

이날 강연 입장 과제로 빈 페트병이나 고장 난 전기제품 등 가져오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가져온 폐제품들을 탄소 배출 최소화 처리가 되도록 비영리 자원 재활용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며, "강연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강연회는 공사가 올해 지역주민을 위해 펼치고 있는 '우리동네 ESG(환경, 사회적 기여, 열린경영) 시간표' 문화교실 사업 일환이다.

아울러 지난 5월 홀몸 어르신 위한 시니어 노래교실과 7월 열린 지역 극단 초청 연극 공연에 이은 세 번째 기획 행사이다.

관람 신청 문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ESG 경영부에 문의하면 된다.

/ 김영태 기자

정읍신태인농협 '찾아가는 신규조합원 교육'

"농업인 실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최선"

정읍신태인농협(조합장 황휘종)은 7월 30일 신규조합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증진과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주환경농업교육원 조정훈 교수가 강사로 나서,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과 농협의 주요사업, 조합원 참여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황휘종 조합장은 "신태인농협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규조합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농협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태인농협은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TP, 중소기업 긴급처방지원

31일까지 상시 접수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위기지원센터)와 전북도는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긴급처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중기부와 전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지역경제 핵심인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경기지표(사업장, 종사자, 총급여, 매출액 등)를 상시모니터링하고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밀집지역 기업이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정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별 위기지역 여부는 전북위기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Stand-up 맞춤지원은 신청기업의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해 '기술지원(Tech-UP)', '사업화지원(Biz-UP)'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기술지원' 분야는 기술정보 분석 지원 및 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 및 인증 지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까지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사업화지원' 분야 경우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IR 자료·투자계약서 작성지원, 물류비 지원, 경영 개선 컨설팅으로 총 5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상반기에는 6개사가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지원규모 54백만원 내에서 기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별 필요에 따라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지원프로그램을 다중 선택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신청기업의 접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되나 하반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JTIS)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공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지원사업≫사업공고'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 차기 총장 선거… 학내 인사 7명 거론

글로컬대학 안착 정부 정책 대응 시험대 총추위 구성 지연 우려도

김정문 교수

백승우 교수

송양호 교수

윤영상 교수

이호 교수

조재영 교수

허강무 교수

올 하반기 제20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거론되는 등 물밑 경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대학가에 따르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학내 교원 인사는 김정문(조경학과)·백승우(농업경제학과)·송양호(법학과)·윤영상(화학공학부)·이호(의학과)·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허강무(공공인재학부) 교수 등 7명 규모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지난 19대에 이어 재도전에 나서는 등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과 함께 경쟁 구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대 규정에 따라 총추위는 현 양오봉 총장 임기 만료 6개월 전까지 구성돼야 한다.

양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인 오는 10~11월께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대학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으로 보며 내부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가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광역단위 모집 체계 개편과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 남원 글로컬캠퍼스의 안착 등 학내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사구조 개편을 완수할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기 총장은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대응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S3 중심 지원체계에서 소외될 경우 연간 600억 원, 5년간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재정 확충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후보들의 핵심 검증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학 내 다른 관계자는 "거점국립대 간 재정 지원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중장기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규모 재정 격차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거점국립대 재정 지원과 연계된 대형 현안들이 산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치를 총추위 구성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거의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제19대 선거 당시 총추위의 규정 개정과 투표 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 이견이 폭발하며 일정이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특히 결선투표제 변경 과정에서 후보들의 반발과 일정 백지화 사태가 빚어졌던 만큼, 이번 선거 역시 규칙 제정을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내 한 소통 채널 관계자는 "매번 선거 때마다 규칙 제정과 일정 조율을 두고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시한 내에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불필요한 잡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체육회>

전북 역도 선수단, 전국대회 메달 획득

금2 등 우수한 성적 거둬

전북 역도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충남 서천에서 개최된 '2026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서 도내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남자일반부 95kg체급에 출전한 순창군청 황수민은 인상 160kg, 용상 190kg, 합계 350kg을 기록하며 3관왕에 올랐다.

같은 소속 전병현은 110kg체급에서 용상과 합계 1위, 인상 2위를 기록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차지했다. 장서진(순창군청)과 김정민(진안군청)은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하이트진로 소속 선수들이 메달을 기록했다.

신지혜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고, 장은비와 문민희도 각각 동메달 3개씩을 수확했다.

/최성민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대표 세계유산 가치 알렸다

세계유산위원회서 매력 알려

고창군이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대표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고창군은 지난달 19~29일 부산 벡스코(BEXCO) K-헤리티지 하우스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통합 홍보부스', '고창군 홍보부스', '한국의 갯벌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세계유산의 가치와 고창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고창군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회원도시의 세계유산을 함께 홍보하고, 고창이 보유한 다양한 유네스코 자산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고창군 홍보부스에서는 '유네스코 인증 7관왕'을 주제로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고창의 세계적 자연·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한국의 갯벌' 홍보부스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360° VR 체험, 지역별 갯벌 전시 등을 진행하며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온라인 홍보 효과까지 거두며 한국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선도 공모 선정 '최선'

지역 맞춤형 모델 발굴

전주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선정을 위해 기획단 회의를 지난달 22일과 29일에 각각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학교, 대학, 산업계, 지역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AI·SW 특화교육 확대와 AI 기반 기초학력 지원, 지역 대학 연계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전주의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한 '전주는 독서다' 브랜드와 연계해 '전주실록 아카이빙', '지붕 없는 도서관' 등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구상안이 다뤄졌다.

기획단은 오는 11일 지자체와 대학,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워크숍을 열어 실행 방안을 다듬고 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채선영 전주교육장은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및 지역사회가 협력해 전주만의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익산서 KBS 국악한마당… '무료 관람'

소리의 고장 익산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상파 최고 권위의 국악 대향연이 전석 무료로 펼쳐진다.

익산시는 국악의 대중화와 시민들의 고품격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KBS 1TV '국악한마당' 녹화 공연을 전격 선보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익산 무대는 국악계의 대중화를 이끄는 스타 소리꾼 박애리와 남상일을 비롯해,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악 신동 김태연이 출연해 깊은 울림의 민요와 국악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5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권 예매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익산예술의전당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박남섭 익산예술의전당 관장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중소도시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여성 독립운동가 '김란사' 음악극

조선 여성 최초로 미국 웨슬리언대학교 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신지식인이자, 유관순 열사의 스승, 독립운동가, 교육자로 평생을 자주독립과 여성계몽에 헌신했던 '김란사'의 삶을 그린 음악극 '그들의 삶'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을 음악과 연극,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깊이 있게 재조명 하며, '다시, 그녀의 가장 뜨거웠던 삶을 마주하다'라는 주제 아래 더욱 깊어진 서사와 풍성한 선율을 담아낸다.

'그들의 삶'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김란사의 고뇌와 사랑, 희생과 신념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관람권 배부는 4일 오전 8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석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북현대, 브라질 1부 출신 공격수 이탈로 영입

측면 공격력 보강

전북현대모터스FC가 브라질 1부리그 출신 측면 공격수 이탈로 바르가스(23)를 영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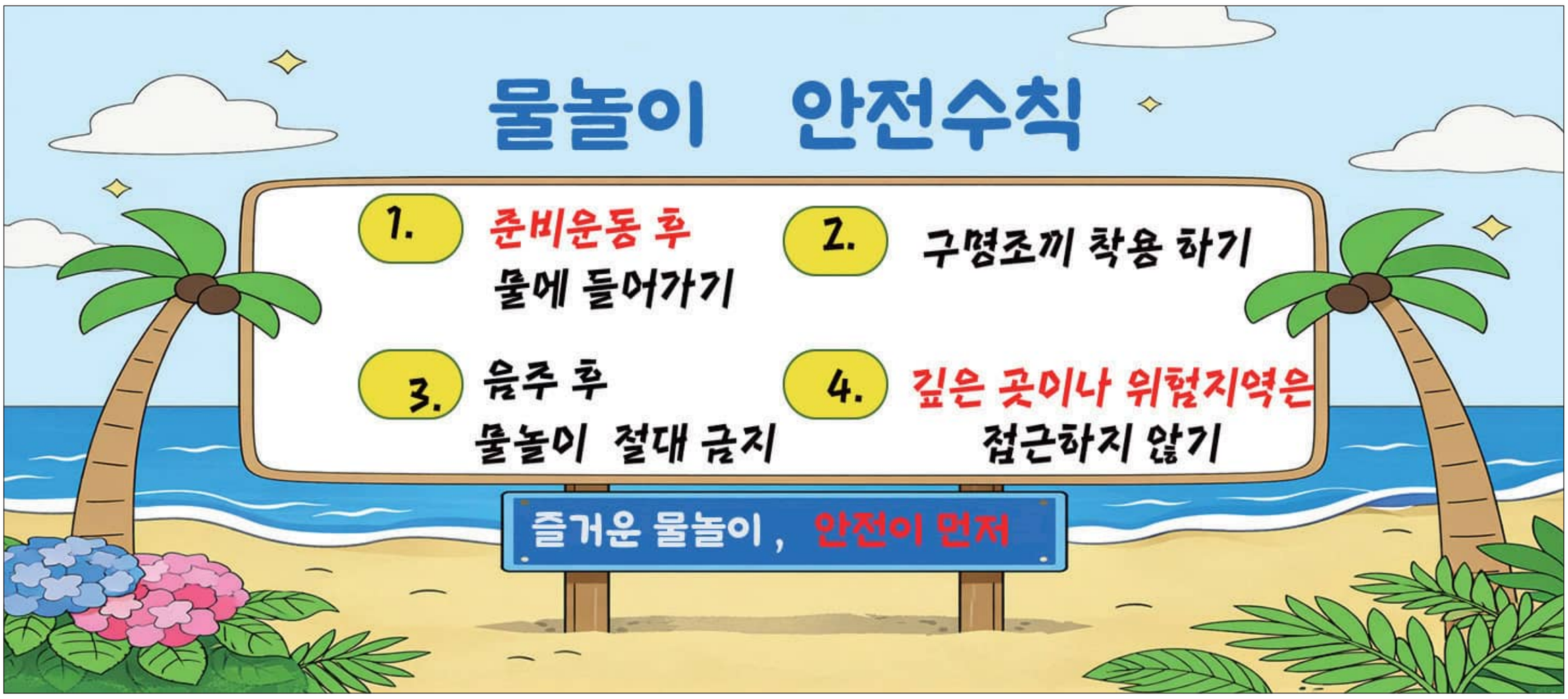
전북현대는 빠른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갖춘 이탈로를 영입해 공격진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2002년생인 이탈로는 181cm, 75kg의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갖춘 오른발 잡이 측면 공격수로 최전방과 좌우 윙어 소화가 가능하다.

이탈로는 2022년 브라질 샤페코엔시 유스팀에 입단한 뒤 2024년 1군에 복귀했다. 2025시즌 세리에B 49경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했고, 2026시즌 세리에A 무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1골 3도움을 올렸다.

이탈로는 "명문 전북현대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팀의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3일 월요일

군산시, 자매도시 김천서 '청소년 문화교류캠프' 운영

군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자매도시인 김천시를 방문해 청소년 문화교류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캠프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격년제로 추진해 온 교류사업으로, 짝수 해에는 군산시 청소년이 김천시를 방문하고, 홀수 해에는 김천시 청소년이 군산시를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류캠프는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했으며, 군산시와 서울시 강북구 등 김천시 자매도시 청소년 6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환영식을 시작으로 직지사 등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부항댐 집와이어 체험과 산내들 어드벤처파크 물놀이를 즐겼다. 또한 가족연극제 '나의 히어로'를 관람하고 김천 특산품인 자두를 활용한 자두청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청소년 교류활동은 자매도시 간 우애를 다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전북과학대와 지역인재 인력 확보 지원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가 지난달 30일 전북과학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 취업과 지역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공동 지원에 나선다.

협약식은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에 발맞춰 대학과 취업지원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지역기업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취업행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현장실습과 직무체험(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을 연계하고, 기업 발굴과 채용정보 공유를 통한 취업 지원에도 협력한다.

시는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모현동 통장협의회 폭염 속 이웃 살피는 온정 나눔

익산시 모현동은 지난달 31일 통장협의회(회장 이장군)가 지역 내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열무 물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현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열무 물김치를 각 가정에 전달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부를 함께 확인했다.

이장군 통장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숙 모현동장은 "이번 나눔이 주민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생활·안전 지원 확대 2(題)

공공생리대 지급기 추가 설치

정읍시가 공공시설 31곳에서 누구나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를 50대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정읍시청과 도서관, 복지시설 등에 수동형 지급기 30대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자동형 지급기 20대를 추가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자동형 지급기는 정읍시청과 제2청사,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정읍시가족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체육관을 비롯해 행정복지센터와 체육·복지시설 등에 설치됐다.

이번 추가 설치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급기별 이용 현황과 생리대 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가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6년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모두의 생리대)'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총사업비 9761만 4000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지급기 운영 상태와 재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월별 이용 실적과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불편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자동형 지급기를 추가해 시민들이 공공 생리대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생리대가 갑자기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당부

정읍시가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8~9월을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는 적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단독·공동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태풍과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주택은 유리창 파손이나 소규모 침수 피해까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보험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강풍이 잦아지면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해가 시작된 뒤에는 보험 가입과 보상이 불가능한 만큼 미리 가입해 피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방학에도 든든… 익산시, 초등돌봄 강화

32개교 · 1100여 명 대상 건강도시락 공급

익산시가 방학 중에도 끼니 걱정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3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1,100여 명에게 건강도시락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초등돌봄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에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3개교 늘어난 32개 초등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점심 급식 공백이 해소되면서 대상 학교 모두가 돌봄교실을 종일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건강도시락은 지역과 상생하는 먹거리 사업으로도 의미를 더한다. 도시락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식당,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익산교육지원청 '대상 학교 선정'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및 도시락 배송' △청년식당 '도시락 제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와 배송 과정에 대한 위생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한 도시락 공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명석 익산시 농산유통과장은 "방학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문화거점 운영 준비 '한창'

메이플 플랫폼·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 점검

민선 9기 출범 이후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읍시가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문화·상권 거점과 여름 대표 축제 현장을 잇달아 찾아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달 30일 △메이플 플랫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정읍천 물빛축제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준비와 운영 내용, 시민 이용 편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운영을 앞둔 도시재생 시설을 시민들이 실제로 찾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정착시키고, 여름철 도심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메이플 플랫폼에서는 식당과 책쉼터, 먹거리 공방, 열린 제작실의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메이플 플랫폼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외식과 체험, 영상 제작 기능을 한 공간에 담은 복합 공동체시설로, 이달부터 순차 운영을 시작한다.

이 시장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절별 행사와 체험거리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방문해 공연장과 음악도서관, 돌봄 공간, 휴게공간 등 복합문화시설의 운영 준비 상황을 살폈다.

이달부터 공연장 운영과 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간별 운영 계획과 시민 이용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정읍천 물빛축제장을 찾아 개막을 하루 앞둔 행사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 시장은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공간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 신청 당부

복지·스마트 문자고지 등 4개 분야 감면 혜택 운영

군산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는 △복지 감면 △스마트 문자고지 감면 △자동납부 감면 △누수 감면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복지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가구에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3㎥에 해당하는 요금(동 지역 월 4,800원, 읍·면 지역 월 4,590원 상당)을 매월 감면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 문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로, 신청 시 건당 3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 조회 누리집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월 최대 5,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조회 누리집,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누수 감면은 지하나 벽체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적용된다. 복구공사 완료 후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영수증, 공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 수도과에 신청하면 누수량의 50%(최대 2개월)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대상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산물 부가가치 높인다"

우리쌀 활용 교육 운영

익산시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가공·창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창업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우리쌀 활용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에 운영된 '딸기 활용 디저트 교육'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상반기 교육 만족도는 96%로,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반영해 하반기에는 우리쌀을 주제로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매주 목요일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지역 농업인 등 24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우리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제품 제조 기술을 익히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창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쌀베이글, 쌀소금빵, 쌀치아바타, 쌀피자, 롤치즈쌀빵 등 다양한 제과·제빵 메뉴와 구움찰떡, 오란다 등 우리쌀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보며 가공기술을 익히게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가공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쌀 소비 확대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방문,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MICE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지역 관광·컨벤션 산업 홍보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는 지난달 31일 GSCO 회의실 208호에서 '2026년도 군산 MICE 서포터즈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산 새만금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군산시 관계자 및 GSCO 임직원,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 9명 등이 참석해 서포터즈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소속감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1부에서는 서포터즈 대표자의 선서문 낭독과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2부 정기 교육에서는 로컬 브랜딩 전문기업 '브랜더스' 편제현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군산 로컬 관광 및 K-관광섬'을 주제로, 지역 관광 자원과 MICE 산업을 연계한 실무 지식을 전달해 서포터즈의 홍보 및 기획 역량을 한층 높였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포터즈는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군산 새만금 예비국제회의지구 온·오프라인 홍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매월 진행되는 MIEC 업계 실무자 초청 정기 교육 외에도 전국 단위 교류 행사인 '2026 코리아 영마이스 앰배서더 총회' 참가, MICE 선진지 견학 등 전문성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함께 제공받는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산 MICE 서포터즈가 지역 관광과 컨벤션 산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공공일자리 113명 본격 추진

익산시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202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와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소득, 재산, 취업취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장기실직자 등을 우선 선발했다.

하반기 사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총 113명이 공공서비스 현장에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 8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7명이다.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에서 환경정비 업무를 중심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동안 다문화가정 지원, 관광자원 활용, 폐자전거 재활용 등 지역 맞춤형 사업에 참여한다.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공공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점포 82곳에 경사로 설치

정읍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점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규모 점포 21곳에 경사로 설치를 마쳤다.

시는 총 5000만원을 투입해 음식점과 카페, 약국, 의원, 슈퍼마켓, 제과점, 의류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2023년부터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점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1곳에 경사로를 무상 설치했으며, 올해 21곳을 추가해 설치 점포를 총 82곳으로 늘렸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정읍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진=정읍시>

이학수 시장은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이동약자의 사회참여와 생활권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발굴하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햇빛연금' 청신호

사미 · 대동마을 선정 "마을별 연간 3억원 가량 수익창출 기대"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공약사업인 '햇빛연금'에 2개 마을이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1차 공모에 2곳(무장면 사미마을, 부안면 대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각 마을별 1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평균 연간 3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제하고도 1억원 안팎의 순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창군에선 내달말 발표될 2차 공모에도 7개 마을이 추가로 도전중으로, 협동조합 구성 등 주민참여 열의가 커 상당수의 마을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군은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검토, 협동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모 신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 9기 80개 공약 가운데 '전력에너지 경제도시-햇빛·바람연금 지급'을 핵심공약으로 정하고, 관련 공모사업 대응과 성공모델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거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발전수익은 협동조합 운영방식과 마을총회 결정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거나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주민복지, 취약계층 지원, 마을 환경개선 등 공동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정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발전수익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모를 준비하는 7개 마을도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창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시원한 여름 추억 선사

수상레저 체험 무료 운영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김제시가 시민들에게 시원한 여름 추억을 선사할 수상레저 체험의 장을 연다.

김제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기고 해양레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수상레저 안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카약, 패들보드, 모터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6일)이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수상안전수칙과 응급 대응요령을 먼저 이수한 후, 다양한 레저기구를 직접 탑승하며 해양레저의 매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체험장소는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타고플라이김제지평선마린'이며, 참가 신청은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을 통한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운영 기간 동안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체험 장비와 응급 대응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하고 특별한 휴식이자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연수 진행

부안군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청우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부안군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문해교육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을 스스로 점검·보완하고 교수역량을 높이는 한편 문해교육 관계자 간 경험 공유를 통해 지역 문해교육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활동 중인 문해교육사와 관내 유관기관 실무자, 예비 문해교육사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수업과 판서의 기초,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실천적 지혜, 학습자를 위한 글쓰기 지도 방법, 디지털·AI를 활용한 문해교육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인권·존엄성을 고려한 교수법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까지 폭넓게 다뤘으며, 참여자들은 교육사례와 현장의 고민을 나누며 자신의 수업 방식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문해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만큼 문해교육사의 전문성과 세심한 접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부안, 폭염 대응 '총력' 2(題)

김제시, 얼음 생수 무료 배부

온열질환 예방 강화

김제시는 여름철 지속되는 고온 현상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비 얼음 생수 배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온에 노출되기 쉬운 대중교통 이용객과 야외 공간을 찾는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냉각 수단을 제공해 체온 조절을 유도하고, 열사병·열탈진 등 치명적인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수 배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특보 발효 시 집중 추진된다.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협조를 통해 야외 활동 및 유동 인구가 많은 폭염 집중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생수가 비치되는 장소는 총 28개소로 시청오거리, 터미널, 역전, 전통시장 입구 등 유동인구가 밀집된 주요 버스 승강장 24개소와 도심공원 4개소(구산공원, 요촌어린이공원, 신풍공원, 시민문화체육공원)이다. 시는 매일 약 1,600병(총 80박스)의 시원한 얼음 생수를 비치해 야외 이동 중인 시민들이 언제든 갈증을 해소하고 열을 식힐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동요령 등 홍보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부안읍 터미널사거리에서 부안군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여름철 폭염 대응 연합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안전점검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수막과 어깨띠를 활용해 거리 홍보를 펼쳤다.

특히 체감온도가 높은 무더위 속 군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생수 2000병을 직접 배부하며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인근 무더위 쉼터 적극 이용 등의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했다.

또 호우, 태풍, 물놀이 등 여름철 주요 위험 요인을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안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도 함께 알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폭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황윤석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힐링 악기 연주 프로그램

고창 황윤석도서관이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두드리는 텅드럼'을 운영한다.

'텅드럼(Tongue Drum)'은 금속 표면에 혀(Tongue) 모양의 홈을 내어 두드려 소리를 내는 타악기다. 악기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도 쉽게 연주할 수 있으며, 은은하고 따뜻한 울림이 특징인 힐링 악기다.

황윤석도서관 지하 1층 배움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모집 단계부터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며 20명 정원이 조기 마감됐다.

수업은 기초 연주법부터 예술 융합·합주까지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텅드럼 맛보기, 힐링 연주 등으로 11월까지 총 5회차가 진행된다.

프로그램 및 향후 도서관 문화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황윤석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시민들과 함께한 새만금 비상아카데미' 추진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새만금일원에서 김제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주관으로 2026년 제 1회 비상아카데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과 위원, 시민 그리고 전북연구원 김재구 박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아카데미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김제시의 핵심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새만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특강을 통해 김제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참가 시민들은 새만금 홍보관 및 33센터 전망대를 견학하고 김재구 박사의 초청 특강을 들으며 김제시의 해양물류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다.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구 박사는 새만금 신항만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하며 "새만금 신항만은 단순한 항만 시설을 넘어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의 성과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김제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으며 시민들도 새만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예산 1조 2400억원 확정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가 지난달 31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김제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회기다.

의회는 지난달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38개 실·과·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중 심사하며 숨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임시회 기간동안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김제시 주요업무에 관해 각종 사업들의 지연여부, 예산낭비 및 행정의 오류 지적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적인 대안이나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김제시가 제출한 예산안 총 1조 2,402억원 가운데 1억 8,700만원 감액된 1조 2,4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총 31건의 안건을 상정해 원안가결 24건, 원안채택 1건, 수정가결 6건으로 처리했다.

이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민생 안정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확정된 추경예산 역시 혈세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

하서면 지사협, 정기회의 개최

부안군 하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0일 하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들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든든한 복지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하서면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시민 생활 밀접 사업장 점검

김제시는 이명호 복지환경국장이 지난달 27일과 30일 양일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교육·환경 분야 주요 사업장을 찾아 업무 추진 실태와 시설 관리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설 이용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및 안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국장은 지난달 27일 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센터 사업단을 방문해 사업장별 기능과 프로그램, 이용실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폈다.

특히 청소년 활동 지원과 시민 평생교육, 영유아 양육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 시민의 생애주기와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편의와 시설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방문해 재활용품 선별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주요 설비 관리 상태와 작업 환경 등을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별 목적과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고수면, 취약계층 대상 '밀착형 가정방문' 강화

고창군 고수면(면장 김성숙)이 관내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고수면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식수 및 냉방기기 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위기 상황이 발견된 가구에는 공공 복지제도 안내 및 지역 내 맞춤형 복지자원을 즉시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숙 고수면장은 "매일 발로 뛰는 현장 방문을 통해 단 한 가구의 복지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자원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성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1087명 마음 보듬어"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 상반기 동안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마음 건강을 촘촘하게 챙기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95회에 걸쳐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해, 총 1,087명의 고창군민에게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김성수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현 영광기독신하병원 전문의, 조선대 의대졸, 서울보훈병원 정신과, 국립나주병원)이 직접 상담하며 주민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선별검사,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한다.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한 한 주민은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도 마을 안에서 편하게 전문적인 스트레스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높은 만족감을 전했다.

마음안심버스 정기 상담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고창터미널 △둘째 주 화요일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격월 운영) △셋째 주 장날(3·8일) 고창읍 전통시장 △넷째 주 수요일 고창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비정기 상담은 5인 이상 단체, 유관기관, 경로당 등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상담 이용 및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상담 신청에 관심이 있는 군민은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및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성수 센터장은 "마음안심버스는 고창군민의 마음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발 빠르게 현장을 누비며 군민들이 소외됨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공감뉴스 | 전북을 세계로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지역 맞춤 혁신모델 확대 2(題)

완주군, 스마트경로당 110곳으로 확대

완주군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비대면 여가·건강·돌봄·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올해 하반기 사업비 9,1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관내 경로당 10개소에 스마트 경로당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번 하반기 연계 구축 사업은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완주군 관내 스마트 경로당은 기존 100개소에서 110개소로 늘어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스마트 경로당 100개소를 대상으로 노래교실, 건강체조,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명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 14회에 걸쳐 실시간 양방향으로 운영해 왔다.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은 근력운동교실을 스튜디오에서 자체 촬영해 8월부터 스마트경로당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24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우울감 해소를 돕는다.

군은 내년에도 스마트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상반기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높아 하반기에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딸기 고설베드, 수박 농사까지 활용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딸기(금지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고설베드를 활용한 중소형 수박 수경재배 실증을 통해 시설 활용도 향상과 농가 소득 다변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와 함께 추진했으며 딸기 수확 후 휴작기인 5~7월에 기존 고설베드를 활용해 중소형 수박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박 재배 시 토양 대신 양액을 사용하는 수경재배 기술을 적용해 토양에서 발생하는 연작장해를 줄일 수 있으며, 고설베드를 활용한 수직재배 방식으로 작업자의 허리 부담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 더불어 딸기 재배 휴작기에 후작으로 수박을 재배할 경우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해 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딸기 재배 농가의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관내 딸기농가들이 휴작기 고설 수박재배라는 새로운 작부체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기자

<사진=순창군>

한전 전북본부, 순창 고향사랑기부 동참

직원 100명 뜻 모아 기탁 기부금 1천만원 전달

한국전력공사 윤여일 전북본부장 등 직원 100명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마음을 담아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윤여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서재환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 장형석 한국전력공사 전략경영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특히 직원 100명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줬다.

윤여일 전북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순창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기탁이 앞으로의 햇빛소득사업 등 민선9기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소방서, 휴가 떠나기 전 '빈집 전기화재 예방' 당부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가 기간에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 냉장고 등 상시 전원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제품은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멀티탭에 여러 전기제품을 연결한 채 외출하거나, 오래된 전선과 콘센트를 방치할 경우 화재 위험이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에어컨, 선풍기 등 계절가전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 습관이 필요하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대기전력도 차단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불필요한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노후 멀티탭·전선 교체 △콘센트 주변 먼지 제거 △가스 밸브 잠금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 점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마트폰 충전기나 보조배터리 등을 장시간 충전 상태로 두고 외출하는 것은 발열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충전을 마친 후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휴가를 다녀온 뒤 가장 기분 좋은 일은 집이 안전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라며 "출발 전 5분만 투자해 전기와 가스 안전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화재예방"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공무원노조 상호존중 협약

신뢰·소통 협력체계 구축 공직자 직무수행 보호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와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환희)은 지난달 31일 상호존중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및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의회와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과 의원, 고환희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존중 문화 확산과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함께했다.

<사진=완주군의회>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 △청렴하고 책임 있는 직무수행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 등으로, 의회와 공직사회가 상생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성중기 의장은 "의회와 공직사회는 군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조합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정과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의료원, 만성질환 합병증 무료검사 지원

고위험군 50명 대상 실시 보건소 연계 통합관리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은 남원시보건소와 연계해 남원권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고위험군 5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치료 지속률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다.

2026년도에는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지질대사 이상 검사를 포함해, 비만도, 갑상선 기능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심전도 검사 등 34종 이상의 항목으로 검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만성질환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기자

순창군, 수확철 운영 앞두고 해수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순창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순창경찰서 금산홀에서 '2026년 수확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총기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수렵면허와 총포소지허가를 보유한 수렵인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피해방지단 30명을 대상으로 순창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함께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과 수렵활동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민과 단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총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심 출현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 강천힐링스파 누적 방문객 8만명 기록

여름 가족 피서지 '각광' 치유·휴양 명소 자리매김

순창 강천힐링스파가 꾸준한 방문객 증가세를 이어가며 순창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4월 문을 연 강천힐링스파는 올해 7월 기준 누적 방문객 8만여 명을 기록하며 개장 이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입소문을 타고 순창군 인근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총면적 2,904.57㎡ 규모의 복합 휴양시설인 강천힐링스파는 치유누리실과 도반욕실, 족욕실 등 다양한 치유·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는 힐링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야외온천 족욕장과 동굴형 체험관, 강천음용수 취수장 등이 조성된 온천정원 역시 색다른 힐링 경험을 선사하며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핵심 시설인 1층 치유누리실과 노천탕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원한 스파와 풀장, 탁 트인 개방감을 자랑하는 노천탕,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우나실까지 한곳에서 즐길 수 있어 여름방학을 맞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피서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한 방문객이 이어지면서 강천힐링스파는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외부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시설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체험 '남원골 풍류' 운영

학교·기관·단체 참여 모집 국내외 청소년 참여 확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직무대리 추정구)은 오는 12월까지 학교·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국악공연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남원골 풍류'를 운영한다.

'남원골 풍류'는 참여 단체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과 판소리·전통무용 체험을 선택하거나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판소리·기악·무용·사물놀이로 구성되며, 체험에서는 판소리 춘향가와 전통무용 강강술래를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월 둘째·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과 연습실에서 운영한다. 국내외 학교·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취학아동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일정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제교류 일정으로 남원을 방문한 한·중 청소년 교류단체 '지행무계(知行无界)' 소속 중국 학생들이 '남원골 풍류'에 처음 참여했다. 학생들은 국립민속국악원 구관 무용연습실에서 무용단원의 지도로 강강술래의 기본 동작과 대형을 배우며 한국의 전통무용을 직접 체험했다.

체험비는 1인당 5천 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기관·단체는 전화(063-620-2324)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우선돌봄 대상자, 다자녀 가구(다자녀·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은 체험비가 면제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미국 청소년, 완주 K-드라마 촬영 명소 매력 체험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 완주DMO는 지난달 29일 미국 국무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NSLI-Y(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for Youth) 참가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완주 K-드라마 스팟투어'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2026 완주DMO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K-드라마 촬영지 투어의 성과를 바탕으로 NSLI-Y 측의 요청을 받아 기획됐다.

K-드라마 촬영지와 완주의 전통문화·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미국 청소년들이 완주의 관광자원과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오성제와 소양고택, 아원고택 등 K-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촬영지를 방문해 작품의 배경이 된 공간을 둘러보고,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미션투어를 통해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소양고택에서는 한옥의 정취 속에서 가야금 공연을 감상하고 직접 연주를 체험했다.

이동 중에는 XR 하이로드 스마트버스를 활용한 실감형 관광 콘텐츠를 체험하며 완주의 주요 관광자원을 입체적으로 경험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스쿨존 중심 그늘막 확대 설치

11곳 확대 통학로 폭염 대응 안전도우미 근무여건 개선

남원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쿨존을 중심으로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을 확대 설치했다.

이번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사업은 등·하교 시간 학생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강한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 주요 횡단보도 대기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용성초등학교 주변 5개소, 남원초등학교 주변 2개소, 월락초등학교 주변 2개소 등 스쿨존 9개소와 그 외 2개소 등 총 11개소다.

특히 스쿨존 내 설치 지점은 학생들의 통행량과 횡단보도 대기 여건을 우선 고려하고 등·하교 시간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등하교 안전도우미의 근무지점도 함께 반영해 선정했다.

등하교 안전도우미는 남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로,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그늘막 설치는 학생들의 폭염 노출을 줄이는 동시에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폭염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실제 통학 동선과 대기 여건을 고려해 그늘막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폭염 취약지점을 지속적으로 살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기자

부안군 지사협, 완주군 벤치마킹 방문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수 복지 사례를 배우고자 완주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택균·소미례)를 벤치마킹 방문하며 양 지역 간 복지 교류 역량을 높였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교류를 통해 복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안군 관계자 23명과 이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 운영사례와 특화사업을 소개하고, 부안군 관계자들과 함께 대표적 우수사례인 '이서천사 빨래방'을 둘러보며 구체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부안군 참석자들은 이서면의 지역 복지자원 발굴과 주민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중년 남성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활력드림' 성료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중년 남성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한 '활력드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17일부터 지난 31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총 13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60세 이상 중장년 남성 15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중장년기 근감소증 예방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한 기공체조 △대사증후군 검사 후 1:1 개별 건강상담 및 영양교육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됐다.

특히 참여자들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개인별 건강상담과 운동처방을 연계해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높이고,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지사면 지사협 학생들과 팥빙수 나눔 펼쳐

임실군 지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상식, 민간위원장 변현섭)는 예성공부방 학생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한 '복달임 팥빙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팥과 과일, 떡 등을 직접 담아 팥빙수를 만들고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지사면 21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전달했다. 면사무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도 시원한 팥빙수를 제공하며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상식 공공위원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2026년 진안군민의 장 후보자 추천 접수

진안군이 지역 발전과 사회 봉사에 헌신해 온 인물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2026년 진안군민의 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진안군민의 장은 군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대장 △문화장 △공익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행장 △체육장 등 총 7개 부문에서 부문별 1명씩 총 7명을 선발한다. 추천 대상은 진안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봉사해 온 인물이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진안군 거주자 △진안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관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사람 △진안군 소재 학교 졸업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은 기관장, 사회단체장, 읍·면장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군은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 현지 실사를 거쳐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특화작목·첨단농업 육성 박차

'천마' 소비시장 확대

무주천마사업단 중심 지역 업체 연계 상품 개발

무주군이 대표 특산물인 '천마'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역 내 업체 연계 천마 소재 활용 상품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천마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식품 3개 가공업체를 연계해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공모 및 7월 적격심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내 3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업체별로 상품개발이 진행 중이다. 무주천마사업단은 이 과정에서 전문가를 연계하거나 사업계획 검토 및 진도를 점검하는 등 상품화를 지원한다.

무주군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개발로 천마 소비 기반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역 업체의 상품개발 역량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 '무주 천마'의 브랜드 정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만 무주천마사업단 단장은 "가공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무주 천마의 명성을 더하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천마 제품으로 천마 산업의 성장과 소비 확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식물공장 설치 사업 추진

기후환경 영향 최소화

무주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형 농업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식물공장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내에 209㎡ 규모로 조성되는 식물공장에는 작업실과 기계실, 재배실 등을 포함한 복합형 시설이 설치된다. 내부에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빛, 양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첨단 환경 시스템과 자동화 재배 기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후나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스마트 환경제어'와 '자동화 재배 기술 실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연중 균일생산과 고품질 농산물 재배가 가능해 '농가 소득 안정' 및 '미래 농업 인재 육성' 기반이 될 전망이다.

올해 11월 준공·운영 예정으로, 무주군은 이 시설을 단순한 생산공간만이 아닌 첨단 농업 기술 현장 실증, 재배 데이터 축적, 농업인 기술 확산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첨단 재배모델을 검증하고, 농가 보급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 천천 조신지구 상하수관로 정비 완료

조신마을·신촌마을 3일부터 상수도 공급 개시 시험운전·수질검사 완료

장수군은 '천천 조신지구 상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3일부터 천천면 춘송리 조신마을 44가구와 신촌마을 13가구 등 총 57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급수를 개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상수도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급수환경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해 생활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천천면 춘송리 일원에 상수관로 5.5km와 하수관로 2.9km를 설치하고,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등 2026년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가압장 설치와 상수관로 확충을 통해 조신마을과 신촌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압과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군은 하수관로 정비를 병행해 추진했으며, 급수 개시에 앞서 시설물 시험운전과 수질검사를 모두 완료해 시설의 안전성과 수질의 적합성을 확인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성수산 왕의 숲 자연휴양림 '휴가철 인기'

체류형 산림휴양지 각광 8월 14일·15일 캠핑 위크 개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임실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이 자연 속 휴식과 물놀이, 캠핑, 문화공연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의 대표 산림휴양 명소인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371일원)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물놀이장, 다양한 숙박시설,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산림휴양지로 여름철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성수산은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국 설화가 전해지는 '왕의숲'으로 불린다. 두 왕조의 창업 군주가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지는 천년고찰 상이암을 품고있으며, 아홉 갈래 산줄기가 여의주를 다투듯 상이암을 감싸는'구룡쟁주'의 명당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편백나무 숲과 진달래 군락 등 생태자원이 잘 보전돼 있어 상이암과 전망대를 잇는 탐방로와 계곡길, 맨발 걷기 노선을 따라 걷다보면 왕의 기운이 깃든 숲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임실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 <사진=임실군>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의 강점은 숙박부터 물놀이, 레포츠까지 여름휴가에 필요한 시설을 빠짐없이 갖췄다는 점이다.

여름철에는 시설이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장이 운영돼 숲으로 둘러싸인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숲속을 활강하는 롤러코스터와 로프체험시설등 산림레포츠 시설, 세족대와 에어건을 갖춘 총1.15km의 황토 맨발걷기길까지 더해져 자연속에서 온 가족이 다양한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6 임실 성수산 로컬 캠핑 위크'를 개최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 운영

감면 대상 여부 사전 확인

장수군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군청 민원실에서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감면 유형이 다양해 납세자가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납세자가 감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하고, 주요 취득세 감면 안내문과 자가체크리스트를 비치해 감면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자가체크리스트는 부동산 취득 감면과 차량 취득 감면으로 구분해 구성되며, 납세자는 항목별 확인을 통해 본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에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제출서류를 검토해 실제 감면 적용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리스트는 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최종 감면 적용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제출서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잎담배 건조장 신축

건조 작업 효율성 높여 고품질 생산 기반 구축

임실군은 잎담배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잎담배 공동이용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잎담배의 안정적인 건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북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대상으로 358.8㎡(108평) 규모의 잎담배 건조장을 신축하여 공동이용시설 기반을 구축했다.

총사업비는 1억4천5백만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군비 3천6백만원을 지원해 농가의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새롭게 조성된 잎담배 건조장은 건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상 여건에 따른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등 고품질 잎담배 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지역 농업 발전 의지 다져

장수군은 지난달 31일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2026년 (사)한국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 농업지킴 결의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회장 한동근)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과 농업 발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정우 장수부군수를 비롯한 문재표 군의회 부의장, 장정복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농촌지도자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농업지킴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우수회원 시상과 기념식, 화합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회원들은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장수군 농업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지역의 농업을 위해 힘써 주시는 농업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농업을 지켜온 농촌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부남면 하굴암지구 등 관리지역 현장 안전 점검

무주군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물놀이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이날 부남면 하굴암지구를 시작으로 무주읍 후도지구, 설천면 지전지구를 순회하며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정위치 근무 여부와 △인명구조 행동요령 숙지 상태, △폭염 대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인명구조함 및 구명조끼 등 안전 시설물 관리 현황 등을 살폈다.

무주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조치했으며, 앞으로도 물놀이 사고 예방 조치에 주력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장을 찾은 황인홍 무주군수는 "매의 눈으로 현장을 살피고 물놀이 안전수칙과 안전 장비 착용을 공유하는 등 입수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근무 시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하게 신경 쓸 것"을 강조했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라제통문에서 무주구천동관광특구까지 주요 물놀이 구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 구간 외에도 소머리 고개, 세심대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 구간을 교차 점검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안전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에 힘쓰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휴가철 맞아 '청렴주의보' 발령

임실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8월 말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공직자들이 느슨해지기 쉬운 하계휴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와 품위손상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여행·골프 등)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휴가비, 숙박 편의 등 일체의 금품·편의 수수 금지 △휴가지에서의 과도한 음주, 음주운전, 도박, 폭행, 성범죄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휴가철을 핑계로 한 민원처리 지연·방치 금지 등이다

임실군은 청렴주의보 내용을 내부 행정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감찰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청렴은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휴가기간에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의식을 잃지 않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모든 직원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원불교 중도원, 익산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금 1,000만원 기탁

익산시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든든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달 31일 원불교 중앙교구 산하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사장 이건중)이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건중 이사장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은 원불교 정신인 '제생의세(濟生醫世)'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노인·여성 복지시설 등 22개 복지기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소외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태양로타리클럽, 취약계층에 백미 1톤 기탁

복지 사각지대 이웃 지원 지속적인 나눔 실천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군산태양로타리클럽(회장 홍경희)은 지난달 31일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백미 1톤(1,000kg)을 기탁했다.

이번 백미 기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백미는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군산태양로타리클럽이 꾸준히 실천해 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군산태양로타리클럽은 그동안 미성동 사랑의 연탄 나눔, 경암동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 및 주거환경 개선, 소년소녀가장 후원, 군산후생원 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데 이어, 올해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온기를 전하고자 백미를 마련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오철 4-H연합회 부안군본부 회장 장학금 250만원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김오철 4-H연합회 부안군본부 회장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25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김오철 회장은 "씨앗 하나를 정성껏 심으면 시간이 흘러 풍성한 열매를 맺듯, 학생 한 명을 응원하는 작은 정성이 훗날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오늘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되고, 언젠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돌려주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 아동·청소년 '완주야 놀자' 여름캠프

7개 지역아동센터 참여

완주군 아동·청소년들이 완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여름캠프에 참가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완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경천애인에서 '완주야 놀자' 여름캠프를 열고 고산, 완주놀자, 늘푸른, 모악엘피스, 소양, 이서, 화산 등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 150명과 인솔자 30명 등 총 180명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캠프는 참가 아동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돌봄 공백 없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큰 호응을 얻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 상하면, 취약계층 방문 안부·건강 상태 살펴

고창군 상하면(면장 박광월)이 관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고, 냉방기기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와 주거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상하면은 양심냉장고 설치하여 생수를 공급하고, 살수차 운행과 자율방재단 운영 등 다양한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내 마을별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여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 모현동 통장협의회, 열무 물김치 나눔

익산시 모현동은 지난달 31일 통장협의회(회장 이장군)가 지역 내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열무 물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현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열무 물김치를 각 가정에 전달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부를 함께 확인했다.

이장군 통장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모현동 통장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정 홍보,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한솔케미칼, 완주군에 식품 꾸러미 전달

한솔케미칼 전주공장(공장장 김용두)이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평화)에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식품 꾸러미 90개를 전달하며 지역 상생 행보를 넓혔다.

최근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혹서기 대비 식품 꾸러미 나눔행사'를 통해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은 관내 소외계층 90명에게 전해질 물품을 기탁했다.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은 매년 삼계탕 나눔을 비롯한 지원사업을 펼치며 완주군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임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번 나눔이 무더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들이 정을 느끼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백구면, 고립·은둔 세대에 시원한 여름 이불 지원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으로 지역 내 고립·은둔 세대 20가구에 냉감 이불패드를 전달하며 무더위 속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은둔 주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백구면은 도움이 필요한 20세대를 선정했으며, 물품 전달과 함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 및 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립·은둔 세대는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이번 방문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김제=온봉기 기자

〈一事一言〉

공권력은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교실은 학생들이 배우는 공간이자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범행 자체가 아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파손·폐기됐고, 그 과정에 현직 경찰 간부인 학생의 아버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 순간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 공권력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행위다.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의식하며 수업을 해야 하고 언제 자신이 불법촬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교단에 서야 한다면 정상적인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교권은 교사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 이후에 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며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데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파손하고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법률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민은 상식의 잣대로 사건을 바라본다. 증거가 왜 사라졌는지, 누구를 위해 사라졌는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사실이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가족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력이 아니다.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을 요구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인멸 의혹과 공정성 논란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때마다 철저한 수사와 신뢰 회복을 약속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수사와 엄정한 처분으로만 회복된다.

이번 사건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직 경찰 간부가 연루됐다는 이유로 단 한 점의 특혜나 온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반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해야 한다. 경찰 조직의 명예는 사건을 덮는 데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때 비로소 세워진다.

전북교사노조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피해를 넘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만약 이번 사건마저 흐지부지 끝난다면 교사는 교단에서 더욱 위축될 것이고 학생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범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범죄를 대하는 사회의 무감각이다.

전북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과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학생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경찰 역시 조직 방어가 아니라 진실 규명의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증거가 사라진 경위와 사건 개입 여부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직 경찰 간부라는 신분은 참작 사유가 아니라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치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정의가 된다. 공권력은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울타리여야 한다. 국민은 특권을 가진 경찰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키는 경찰을 원한다.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피해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신뢰를 지키고 공권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학생도, 학부모도,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전북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원칙이며, 조직 논리가 아니라 정의다. 그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 독자투고 |

안심하고 떠나는 여름휴가 빈집 예방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피서지로 떠나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즐기는 동안 비어 있는 집을 노리는 빈집털이 범죄 위험 또한 커지는 시기다. 설레는 휴가지에서 안심하고 시간을 보내려면 떠나기 전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가철 빈집털이는 주로 문단속이 허술한 집이나 택배와 우편물이 쌓여 장기간 집을 비운 티가 나는 곳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고층 아파트라도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외출하면 옥상이나 가스배관을 통한 침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경찰은 휴가철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밀집 지역과 다세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받아 순찰하는 탄력순찰 서비스와 장기 외출 시 집 주변을 집중 순찰해 주는 빈집 사전신고제를 적극 운영하며 치안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범은 생활 속 실천이다.

외출 전 문단속은 물론 저층과 고층 모두 창문을 완전히 잠가야 한다. 신문이나 택배 등 배달물은 사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이웃에게 수거를 부탁하고 TV 및 조명의 예약 기능을 활용해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주의와 관심으로 집 안 안전을 먼저 챙긴다면 더욱 안심하고 뜻깊은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박재원

사 설

결혼 미루는 청년들, 전북은 정책의 출발점부터 다시 세워야

전북의 혼인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는 더 이상 단순한 인구지표가 아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며,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신호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지적했듯이 출산과 양육 지원에 집중된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현실을 외면한 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출발선이 빠진 대책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돌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정작 결혼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비 부담은 커졌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는 한 출산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적으로 혼인 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북만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 현상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남아 있는 청년들조차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이라면 전북의 미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혼인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와 고용, 주거, 문화, 교육환경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공예식장 운영 실태 역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면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용하지 않는지부터 분석해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예식비와 신혼집 마련, 초기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과 이용하기 편리한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정책의 효과도 살아난다.

그러나 결혼 지원금만으로 혼인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안정적인 삶에 대한 확신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며, 합리적인 주거정책과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결혼 지원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인구정책의 중심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출산 이후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떠난 청년이 다시 돌아오며, 지역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전북의 혼인율 최하위라는 오명은 결코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다. 이제 행정은 출산 장려라는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출발점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전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인구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시

8월 / 김 사 인

긴 머리 가시내를 하나 뒤에 싣고 말이지
야마하 150
부다당 들이밟으며 쌍,
탑동 바닷가나 한 바탕 내달렸으면 싶은거지
용두암 포구쯤 잠깐 내려 저 퍼런 바다
밑도 끝도 없이 철렁거리는
저 백치 같은 바다한테
침이나 한번 카악 긁어 뱉어주고 말이지
다시 가시내를 싣고
새로 난 해안도로 쪽으로
부다당 부다다다당
내리꽂고 싶은 거지
깡소주 나발 불듯
총알 같은 볕을 뚫고 말이지 쌍,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문과 졸업. 대학 시절 대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기' 등의 시를 발표했다.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시, 새만금 경제도시 도약

다양한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침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과감한 기업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부담완화와 스마트 제도혁신, 수출시장 개척, 외국인 인재유치, 근로자 복지, 기업 애로해소까지 기업성장 전 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결과 수출증가와 투자환경 및 기업만족도 향상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 부담은 낮추고, 제조혁신은 더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

김제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행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1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금융난 해소에 앞장선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 제조기업(18~39세)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를 도입, 기존 우대금리에 1%를 추가한 최대 5%의 이차보전과 수출 지원 사업 가점 등의 특격을 부여하고 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대기업 협력 사업도 순항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추진 중인 '전북형 삼성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올해 3억 6,000만 원을 투입해 8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삼성전자 멘토단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월촌 리팩토리'로 6개 기업을 지원해 초기 입지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민선 8기 수출액 64.7% 급증…무역 경쟁력 고공행진

시의 전방위적 기업 지원은 가시적인 경제 지표의 대도약으로 이어졌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민선 8기 김제시의 총 수출액은 13억 1,049만 달러로, 민선 7기(7억 9,545만 달러) 대비 무려 64.75%가 증가했다.

수출 물량 역시 21만 4,203톤에서 37만 1,299톤으로 73.34% 급증하며 활발한 대외 교역 성과를 증명했다.

이는 기존 코트라(KOTRA) 연계 '글로벌 시장 진출 토탈마케팅'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민선 8기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협력해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통상닥터)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 위험 요소를 줄이고 판로를 넓히는 안전망 중심의 수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둔 셈이다.

"사람이 모여야 기업이 산다"…외국인 인재 및 정착 전방위 지원

시는 고질적인 제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연계한 투트랙 정착 제도를 운용한다.

먼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올해 도내 최다인 300명의 비자 쿼터를 확보했으며, 정착한 외국인에게 정착지원금(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내·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활동을 지원해 인력 이탈을 막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사회통합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1,750만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내 근로자를 위한 주거 및 고용 안정 시책도 든든하다.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근로자에게 보장금으로 지급하는 '김제형 내일채움공제'를 시행 중이다.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7,200만 원의 재정을 투입, 고용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 근로자 166명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김제사랑카드로 지급해 출퇴근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우수 도시' 선정

김제시의 기업 친화 행정은 철저히 현장 중심이다. 올해 개최된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에는 5개 유관기관이 합동 참여해 다양한 지원책을 한 자리에서 상담·안내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0인 이상 제조기업과 팀장급(6급) 공무원 160명을 1대1로 매칭하는 '부서별 기업전담제(결연공무원)'를 통해 작년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오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결연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전담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스톱 고충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 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펼친 결과, 김제시는 지난해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하기 좋은 우수 도시'로 2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가 추진해 얻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 새만금 경제도시 김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한국무역협회(K-stat) 수출입 통계자료

(단위 : 금액 - 천불 / 중량 - 톤)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물량(중량)	금액	물량(중량)	
민선8기	1,310,496	371,299	2,330,943	3,788,476	-1,020,447
민선7기	795,450	214,203	1,958,244	3,599,990	-1,162,794
증감율	+64.75%	+73.34%	+19.03%	+5.24%	+12.24%

애로사항 청취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외국인 비자 정착 지원